

建築設計는 建築士가 하는데...

崔昌奎
건축사사무소 신진

우리나라엔 건축을 전공하고 건축사협회 회원으로 전국에 약 3천명 가까이 있다. 그외에도 건축사협회 회원이 아니면서 건축을 전공한 사람도 2천명은 넘을 줄 안다.

건축사법에 의거해서 현재 설계사무소를 개설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 곳만도 2천6백이 넘는다. 그 많은 건축 실무자들은 경력이나 능력이나 연령이 다양각색이다. 매년일회식 국가고시가 시행되지만 응시자의 합격률은 그리 좋은 편이 못된다. 아마도 이러한 제도가 생겨난지가 20년이 이상되지만 전체의 평균(매년) 합격률은 20%내외가 아닐까 생각된다.

여기서 건축사후보격인 이제 가까운 시일내에 이 국가고시에 응할 예비건축사들은 몹시도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 불평의 ①은 합격률의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대학교육의 전체면에서 볼 때의 대학 졸업생들의 전문 지식이라든지 보면 80%가까운 합격률인데도 오직 工科인 건축사는 20%내외란 너무도 차이가 있다. 무슨 이유로 이런 문제가 생겨날까, 이유는 많다. 첫째 시험의 내용을 보면 객관식문제와 주관식문제의 비율이 8 대 2 정도로 객관식문제가 많다는

점이다. 이 문제는 이 고시를 주관하는 건설부의 권위주의적인 점이라고나 할까 대개의 경우 시험위원으로 위촉을 받는 사람들은 거의가 工科대학의 건축과 교수들이다.

이 국가고시란 대입의 입시도 아니고 취직의 채용시험도 아니다. 매년 거의 고정된 자의 합격은 어떤 계획적인 시책같은 것에 있다는 것을 암시해주고는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건설부가 국가의 일년간에 발생할 건축설계의 양의 예측이나 통계와 건축사의 수와의 계획균형이 정확하지 못하다든가 소수만을 합격시키면 이 고시가 다른 어떤 고시보다 권위가 서는 것인지 입학시험이나 채용시험도 아닌 이상 전원 합격할 수도 전원 불합격도 있을 수 있는 일이고 국가에서 하는 자격시험인 이상 또는 건축학의 특성에 비추어서 볼 때 건축설계능력의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늠하는 소위 국가고시인데 출제자들의 채점의 편리상 객관식문제를 출제하는지는 몰라도 건축설계란 통계나 객관적인 견해로서 한다가 보다 하나의 건축이 설계하는 그 건축사의 전인격이요, 개성이 깃드는 것일진대 건축사 국가고시에 객관식문제가 압도적으로 출제된다는 자체가 벌써 사람에게서 오래전부터

頻笑를 받아왔다는점과 응시자들 역시 고등고시시험이 DATA나 수식을 암기해야 하는 가소로운 국가고시가 되고 있다.

건설부나 출제자나 다 권위주의적 입장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볼 때 건축사 국가고시위원회같은 것이 있어서 매일 교대로 또는 윤번제로 또는 시험문제를 전체위원들의 합의하에 출제하는 방법이 정당한 줄로 믿는다. 벌써 몇번인가 이 시험문제에 소위 단무지식사건이 몇번인가 일어난다는 사실에서 볼 때도 마땅히 고시위원회 같은 기구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또하나 가장 큰 문제로 근자에 와서 정부 건축직에 얼마이상 근무한 공무원에게 무시험건축사 면허를 부여한다는 독선이랄까 비민주적이랄까 無識輩들이라고나 할까 가소로운 案을 발표하고 건축사협회등의 강한 저항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명색이 국가고시인데 공무원에게 특혜를 주겠다는 것인데 어떻게 이런 발안이 나올 수 있을까? 여기서 국민들이 공무원을 올바르게 보지않는 것이나 아닌가? 그들은 가끔 상상도 못할 발안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들 책상앞에 놓인 창의, 친절, 봉사라고 적은 牌表의 창의를 겨우 자기들에게 백번 유리한 생각을 해내라는 것인 줄 착각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 창의는 관리행정에서 국민에게 유리하고 편리한 방법이나 제도를 창의해 내라는 것이고 對民에게 친절하라는 것이고 對民에게 봉사하라는 뜻임엔 틀림없는데 그들은 공무원 자신들에 유리하고 편리하게 하라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다. 아니다 확실히 말해서 그들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관리나 행정이 국민보다 우선한다고 생각하고 있음이 틀림없다. 공무원들의 이러한 정신이나 자세는 우리들로 하여금 민주화에 회의를 가지게 하는 가장 큰 문제되는 일이다. 같은 이야기이지만 불란서처럼 정권교체나 혁명이 자주 일어나는 나라도 별로 없을 것이나 정권이

법앞에 特字나 特別字만 붙이면 만사형통이라면 국회의원은 왜 많은 歲費를 주면서 있어야 하는가?

바뀌어도 전반국민생명엔 어떤 미동도 없이 평상시와 같이 사회모든 일이 순리대로 순조롭게 진행되는 나라도 없다.

그것은 한마디로 불란서의 공무원들의 정신이요, 자세인 것이고 엄정중립을 지키는 그 나라 공무원들의 질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모두가 알고 있다. 그런것이 민주주의가 정착된 사회이고 민주화가 생활화된 사회인 것이다. 우리가 가까운 시일안에 국민투표나 선거가 있을 것이다. 이때의 우리 공무원들의 정신, 질, 행동, 자세를 보면 선거의 결과 이전보다도 민주화에로의 가능성을 알 수가 있을 것이다. 오직 간단하다고 할 수 있는 건축의 국가적인 작업량과 필요인원

(건축사등)의 지급계획이 제대로 세워져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상기한 건축국가고시예의 실태를 이야기해본 것이다. 이런 기회에 반드시 말하고 강력히 주장하고 싶은것은 건축사 국가고시위원회의 구성(약20명정도)이 고시의 문제는 8:2정도로 주관식문제가 8이고 객관식문제 2정도로 해야 할 것이고 건축직 공무원에게 무시협건축사면허 고려란 가소로운 이야기는 제발 취소해야 한다. 합격률은 정할 수는 없지만 대학의 타과의 유사한 문제와의 균형을 보아서 정한다기보다(자격시험이기 때문에 Cutline 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합격시켜야 한다. 합격한 자가 설계사무실을 내든 안내고 다른 일을 하든 그것은 국가고시와는 무관한 일인 것이다. 여기서 근자 우리 주변에 흔히들 하는 자울이란 말이 생각난다. 건축사국가고시문제를 반드시 건설부가 관장해야 하느냐 건축사협회나 또는 건축관계협회(건축학회, 건축가협회등)에 자율적으로 맡겨봄도 어떨까하는 생각이다. 우리나라의 모든 공무원들의 생각은 이 나라의 모든일은 정부나 관이나 공무원들이 하지 아니하면 당장 이나라가 멸망하고 아무것도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권위주의라고

보이는 것이다.(아니 사실은 권위보다 권력인 것이다) 권위나 권력에 애착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 있는 한에 있어서는 민주화는 막연한 것이다. 몇년전부터 지방자치제운운하면서도 요리조리 이유와 명분을 세워서 실천에 옮기지 못한 그 저의는 무엇일까. 구심적인 중앙집권제가 관공서들에겐 권위나 권력이니 국물이나 다 유리하기 때문인가 아니었는가. 수도권구 소산계획이란, 말은 들은지 매우 오래된다. 또 많은 자본의 투자나 몇가지 방법을 실천도 해보았지만 수도의 인구는 감소는 커녕 증가일로에서 일천만을 육박해 왔다.



여기서
근자 우리주변에
흔히들 하는 자울이란
말이 생각난다.
건축사 국가고시문제를
반드시 건설부가 관장해야 하느냐,
건축사협회나 또는 건축삼단체에
자율적으로 맡겨봄도
어떨까하는
생각이다.



그러면서 그 주거를 해결하기 위해 연립, 다세대, 삼세대, 집합 주택조합, APT 단지를 조성해서 계속 건축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그런 건축들은 건축사들이 하고 있다. 허나 大財閥社 들은 거대한 Project는 거의 외국에서 설계를 해오는 것이다. 건축사법에 의해서 외국에서 해다가 우리 건축사 누군가의 명의를 빌어서 행정상으로는 우리 건축사가 설계한 것으로 되어있다. 건설부도 이 내용을 잘 알고 있다. 그러하다면 이 나라의 官도 기업가들도 건축사를 믿지 못하고 외국에다 시켜야 자람이나 권위나 안심이 된다면 이 나라의 공과대학의 건축과는 무슨

의미가 있으며 건축국가고시는 또 무엇이며 건설법이나 건축사법이니 수많은 법은 무슨 용도로 제정했는가. 高位層의 주택이웃에 건축법에 어긋나지 않는 허가가(구청)난 소주택을 건축하는데 그 高位者宅側으로는 난 창호를 막아 없애라고 한다. 건축법 위반도 아니고 구청에서 담당관의 실사도 있었고 완공이 가까워가는 공사도중에 한쪽 창을 막으라는 것이다. 이유는 무조건이란다. 그 高位者는 국가대기업의 사장이다. 구청이니 경찰서, 건축법이고 뭐고 없다. 무조건 창을 없애라는 우기고 나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모든 법앞에 特字나 特別者만 붙이면 만사형통이라면 국회의원은 왜 많은 歲費를 주면서 있어야 하는가? 요즘 가슴속에 쌓였던 말이 서서히 나오기 시작한다. 어이없고 말못할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그러나 국민은 기억해야 한다. 관리행정이란 그 실행자인 공무원이란 망각을 잘하는 사람들 같다. 제주도 거대한 굴밭이나 서산의 농장이야기가 어제 같은데 그것이 잘한 것이야 못한 것이야를 국민에 묻겠다고 하며 대통령으로 출마하겠다는 후안무치한 사람들에게 박수를 보내는 국민들도 있는 묘한, 어제일은 완전히 망각하는 버릇을 가진 우리가 건축사나 건축가나 공간이니 기능이니 학생들에 목아프게 떠드는 것이 해야할 일인지 아리송한 요즘의 심정이다. 추석이 지나고 한로가 지났는데 제법 朝夕이면 소슬바람이 불어오는데 상기사람들을 위해 표를 찍어야 한다. 안찍으면 위법이란다. 참 재미있는 세상이긴 하다. 그러하다면 각자는 생각해야 할 것이다. 우선 나는 무엇이나 건축사와 건축법과 실제의 건축과의 관계는 무엇이며 큰 손이나 치마바람이나 APT 대단지 계획이 연일 발표되는데 말이다.